

’22. 제66회 5급 공채 합격수기

이한빈

안녕하세요,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일명 행정고시 일반행정 직렬 합격생 이한빈입니다. 저는 2020년 공공인재원에 입실하면서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고, 수험기간 동안에 신림동을 한 번도 가지 않고 공공인재원에서만 공부하여 수험생활을 마쳤습니다. 다른 합격생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저의 수험 생활이 결코 수험의 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험생활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절대적인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볼만한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에 이제 막 진입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이자, 저 역시 했던 큰 실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일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열심히 한 거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집중팔구는 처참한 2차 시험 점수 앞에 낙심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수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특히 신림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주변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소위 “부진정 고시생”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합격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탈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다른 수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공인재원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스스로의 의지를 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생활스터디나 답안작성 스터디를 통해 공부시간을 확보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해 빠르게 “부진정 고시생”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터디를 구함에 있어서도 공공인재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여 있고, 입실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공공인재원은 아무래도 실원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서로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터디 내에 이른바 “빌런”이 출현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잘 구한 스터디는 서로의 수험생활을 응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활 내내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합격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일 것입니다. 행정고시는 내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과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 또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수험 기간을 거치고, 불합격도 해보고 합격도 해본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합격생들과의 상담, 답안첨삭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격생들의 팁이나 공부법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도 가능한데, 합격생들은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자신이 답안에 써보거나 시험을 위해 정리했던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공인재원의 강점입니다. PSAT 및 각종 유사 시험들의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고시생들에게 생각보다 큰 장점입니다. 원하는 자료들을 쉽게, 안정적으로,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이 PSAT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했던 점은 2차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공인재원 실원들은 고시동 모의고사 외에 무료로 과목당 약 2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더 칠 수 있습니다. 이는 먼저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신 가장 높은 품질의 문제를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풀어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는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의 강평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실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모의고사와 강평이었습니다. 현재의 행정고시는 외운 내용을 지문과 잘 연계하여 서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수험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인사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일지라도 저희 같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서는 이러한 문제 경향은 안그래도 어려운 시험의 난이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강평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설명과 생각들을 듣고 배우는 것은 이런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경험보다도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의 강평을 듣지 않았다면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기 너무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국 스스로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같이 공부하고 올해 같이 합격한 2명의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이 수험 기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정고시는 노력을 쌓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시험이지만, 쌓는다고 해서 다 붙는 시험도 아닙니다. 노력에 더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협동, 공유, 행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공인재원은 이 모든 측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인재원과 합격생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행정학과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